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sup>1</sup>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sup>2</sup>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sup>3</sup>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sup>4</sup>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sup>5</sup>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sup>6</sup>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21:1-6)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상된 영적

교회 안에는 두 종류, 곧 신앙의 진리 안에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선한 삶 안에 있는 것은 아닌 사람들과, 체어리티의 선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진리 안에도 있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어리티의 선 안에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진리 안에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교회 그 자체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내적 교회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로는,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 의해 선을 통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사람들은 외적인 영적 교회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로는 ‘히브리 종’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AC.8974)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974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21:1-6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In the spiritual church, which the sons of Israel represented, there are two kinds of men: there are those who are in the truth of faith and not in the corresponding good of life, and there are those who are in the good of charity and in the corresponding truth of faith. They who are in the good of charity and in the corresponding truth of faith are they who constitute the very church itself, and are men of the internal church. In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 these are they who are called the “sons of Israel.” These are of themselves free, because they are in good; for they who are led by the Lord by means of good are free (n. 892, 905, 2870 - 2893). But they who are in the truth of faith and not in the corresponding good of life are men of the external spiritual church. These are they who in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 are meant by the “Hebrew servants.”*

이는 오늘 본문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

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When thou shalt buy a Hebrew servant)에 대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더하사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말씀의 내적 의미, 곧 속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1</sup>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법을 보통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계명’이라는 법이고, 둘째는 ‘정의’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규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각각 ‘commandment’, ‘judgment’, ‘statute’ 이렇게 부릅니다.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ommandment’, 즉 계명은 개인의 삶에 관한 법입니다. 이를테면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법규라고 부르는 ‘judgment’, 즉 정의입니다. 이것은 시민적 삶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공적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tatute’, 즉 규례는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어떤 복식을 갖춰 입어야 하며,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법들은 겉으로 보면 자연적인 법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진리 전체를 한 사람에 비유하면, 십계명은 머리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수많은 정의와 규례들은 손과 발, 몸이나 장기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2</sup>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의는, 히브리 종에 관한 정의입니다. 히브리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종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못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 종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기쁨으로 행한다면, 그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의 명령이나 요구에 따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곧 자원하여 기쁨으로 원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면서 그런 기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히브리 종 상태로 시작합니

출21:1-6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다. 본문에서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종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뜻입니다. 말씀에서 ‘산다는 것’(buy)의 속뜻은 영적인 어떤 것을 자신의 생명이나 의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진리에 따라 살려는 것은 그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종이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섯이라는 수는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은 싸움이 끝난 다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만약 시험을 잘 이겼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자유란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자아와 세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곱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까? 몸에 좋지 않은 술, 담배 같은 것을 끊는 것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요 정도도 이룬데 하물며 몸에 밴 더 큰 악습 끊는

것은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습관적으로 했던 일을 계속하려고 하고, 내면의 진리는 하지 말라고 하니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싸우는 기간이 여섯 해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자유인이란 진리를 마지못해 행하는 상태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종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험을 견디고 이긴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기에는 지옥의 권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이기십니다.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지금 저에게 이러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이 올 때마다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시험에서 넘어져 수치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래 지속된다면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sup>3</sup>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 말씀은 시험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 사람, 즉 자유인이 되지 못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신으로 왔다는 것은 종이 처음 주인의 집에 올 때, 아내나 자녀 없이 혼자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자 종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의 아내는 진리에 대한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종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남자 종이 단신으로 왔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기는 하는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어떻게 진리를 배우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이니까, 또 그것에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바로, 단신으로 온 히브리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종이 장가를 들어 아내가 있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배우고 행하면서 기쁨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 기쁨이 주님께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자아로부터 오는 기쁨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내는 자아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진리와 관련해 자아에서 오는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

출21:1-6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진리를 가르치는데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또는 진리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거나,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 역시 자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자는 넘치는 지위와 물질적 혜택을 누립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 좋아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들의 기쁨은 자아에서 오는 기쁨이며 히브리 종의 아내로 표현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하십니다. 단신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언제 나갑니까? 여섯째 해가 지난 다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신으로 나가는 것은 오랜 영적 싸움 후에도 여전히 진리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에서 오는 기쁨도 없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단신으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영적 싸움을 오래 하다 보면 무언가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진리를 행하는 기쁨이 없는 것이 단신으로 나가는 히브리 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자아의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시험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이나 애정과 결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의 기쁨과 결합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새 교회에서는 바울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 실제로 스베덴보리가 영계에서 만나본 바울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곳 다른 사도들은 그를 벗삼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다... 그가 신약성서의 서간을 쓴 것은 그의 내면도 그와 같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서간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으며,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 한 가지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생애나 그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자신의 열정이 어떤 것인지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데리고 온 아내와 함께 나가는 것은, 오랜 시험을 거친 다음에도 계속 자아의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4절에서 다루는 정의(judgment)는,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한 경우입니다.

<sup>4</sup>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종이 라 하더라도, 상전이 아내를 주어 혼인을 했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어떻게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참으로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앞에서 말하는 아내는 의미가 다릅니다. 종이 데리고 온 아내는 자아에서 오는 기쁨, 또는 자아의 선을 의미한다면, 여기 상전이 준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또는 영적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전이 준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내적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진리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진리와 선의 영적 혼인으로부터 새로운 진리와 선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진리를 실천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출21:1-6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선)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와 선의 결혼에서 나오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종이 일가를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주인의 집을 떠날 때가 되자, 주님은 가족들과 헤어져 종 혼자만 나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종이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는 것은 진리와 선의 영적 혼인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번 결합했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왜 깨질까요? 진리와 선이 완전하게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주셔서 선을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길 때 선과 진리가 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서에는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악은 단호하게 끊고, 적극적으로 선을 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적지근한 상태

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이기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에 좋지 않아 커피나 술을 끊었던 사람이 가끔 한 잔씩 먹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도, 그렇다고 안 정복한 것도 아니었던 그런 상태... 시험에 직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렇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만 가지고 저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8981번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회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 선을 배척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의지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 선이 흘러 들어올 때는 세상 사랑이 잠자고 있을 때이며, 그때 선은 그의 지성 안으로 흘



##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러들어온다.

선이 지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을 담는 그릇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 안에 선이 담길 때 생명이 바뀝니다. 즉 자아에 속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이 의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과 진리가 완전하게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육 년 기한이 지날 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모두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 아내를 두고 떠나는 히브리 종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선과 진리가 결합했다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 8574번 글에 보면 주님의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 있지만 그것에 부합하는 삶의 선(선한 삶) 안에 있

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삶의 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사람이고, 후자의 사람은 진리와 선이 모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자를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시고, 후자를 자유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없고 진리만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악과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누구나 히브리 종의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험이 찾아오지요. 주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종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인간관계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질병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

출21:1-6

‘히브리 종에 관한 법 (1)’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서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악의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히브리 종의 상태를 고착시킬 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위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1</sup>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sup>2</sup>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시37:1-2)

아멘

원본

2017-08-06(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31(D3)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